

Date: 5 Tishrei 5787 (September 16, 2026)

Torah Portion: Ha'Azinu

Topic: 토라와 테필라, 제 2 부

사람은 당연히 가족을 부양하고, 관대함을 실천하므로 창조주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기본적인 생계 문제로 인한 불안에 잠식되지 않고 순탄히 살아가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섬길 육신적인 힘을 얻기 위해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 분별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적 상황에 있어서, 육신의 강건함을 바라며 올리는 간구는 더 효율적인 영적 섬김을 위한 기반, 곧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라는 도구, 그 그릇 자체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기도를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여호와 신뢰와 순종, 곧 사랑—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을 잃게 됩니다.

이는 잠언 28 장 9 절에 대하여 마하랄(Maharal)의 설명은 이 분별의 이해력을 다음과 같이 더하여 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토라 듣기를 거부하여 귀를 돌려버린다면", 그는 다른 계명을 지키면서 단지 어느 한 가지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그리고 그 삶에 기반한 기도가—무엇을 위한 것인지 가르쳐 주는 바로 삶의 근원인 창조주의 가르침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호와 창조주께 기도는 올려드리되 거룩하신 분께서 사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토라를 듣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이 경우는 여태껏 그의 '유지해주신 삶'을 어떻게 더 향상하고 잘 세워야 할지에 대한 최상의 신성한 가르침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 자신을 지탱해 달라고 간구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선물(축복)을 원하면서도 그 선물이 존재하도록 하신 거룩하신 분의 소망은 선물을 받은 후에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는 내재적인 모순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여호와께 "나는 당신의 말씀은 안 들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말을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귀가 여호와와 뜻인 생명이며 장수인 토라로 향하기는 거부하면서, 하늘이 자신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한 복과 생명의 가르침, 재앙과 사망에 대한 경고에는 기울이지 않으면서, 여호와께는 '우리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세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는 그 의도에서 안타깝게도 왜곡된 바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여호와 엘로힘께서 '그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것이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기도의 의미를 성경이 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 올바른 길—믿음과 순종의 사랑—을 잃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여호와와 지식의 영을 통하여 다시 '하아지누' 신명기 32 장 1 절의 서두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그라(Gra)'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토라의 가르침 듣기를 거부하여 귀를 돌려버리는 자"라는 말씀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확장합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토라 공부라는 것이 주로 '입'과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반복함으로써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잠언서는 입이 아닌 "귀"를 먼저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입에서 토라를 멀리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그라(Gra)'는 그의 통찰력을 통하여 다음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토라 공부를 전면 거부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본 내용이라는 이유로 귀를 닫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훨씬 더 미묘하고 위험한 영적 함정이 있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새로운 내용이나 해석, 가르침은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은 열정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다시 그 말씀의 이해를 더 깊이 정검하고 살피고자 하는 열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아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의 영이 그 마음 안으로 연기처럼 들어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를 소유한 자는 무엇인가 새롭다는 느낌에는 쉽게 이끌리지만, 좀 가까워지고 익숙하다 싶으면 집중된 열정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토라는 말씀을 받은 각 영혼이 오늘에 있어서 행동을 통한 실제적 삶으로 합승되기까지는, 생명인 말씀을 완전히 체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귓등에 익숙한 것일 뿐입니다.

토라의 삶은 복잡하고, 반복하며, 다시 숙고하고, 거듭 탐구함으로서, 어제까지 지적으로 머리 어느 세포에만 저장해 기억했던 말씀이, 오늘에 있어서는 행동과 연합된 "사랑의 영"으로 마음 속에 이해의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단순히 보였던 성경구절이, 사막을 한차례 지난 후 다른 시기에서 맛이 하였을 때에는 전혀 다른 깊이의 이해력으로 '두뇌와 심장'- 곧 "마음"에 들어 옵니다.

토라 말씀을 반복하는 정검은 그 내용을 기억으로, 기억을 이해로, 그리고 이해를 더 고무되고 품격 있는 인격의 소유자로 승화시키는 신성한 훈련소가 됩니다. 따라서 토라 공부의 목적은 단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접해서 새로운 차원의 정보를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라(Gra)는 기도에 있어서도 놀라운 '상응의 원리(이에는 이 눈에는 눈; measure-for-measure)'가 운행한다고 봅니다. 생명 빛인 토라를 반복해서 공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매일 여호와 엘로힘 앞에 나아가려고 똑같은 기도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는 지혜와 용서, 치유, 공급, 구속, 그리고 평화를 거듭 구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인간의 의존은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기에, 그의 기도 또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이 늘 반복된다는 이유로 토라가 더 깊이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라면, 어찌 반복되는 자신의 기도가 여호와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담긴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라를 두고 "이미 들어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하늘 또한 자신의 기도에 대해 얼마나 자주 똑같이 답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여전히 그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토라의 말씀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경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 필요성을 없애지 못하듯이, 어제의 토라 공부 또한 오늘의 토라를 다시 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대로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력은 '하아지누(Ha'azinu)'에서 모세가 던진 첫 외침, 곧 "귀를 울이라"는 경고에서 근거하며 더 깊은 곳으로부터 새 힘을 방출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미 토라를 들은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섰고, 계명을 받았으며,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호와 엘로힘의 사람, 모세의 인도 하에 그 신성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자체도 대부분 그들이 이전에 접했던 토라의 내용으로 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가 최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에도 그 명령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로 "다시 들으라"는 것입니다.

육의 귀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느낄 수 있다 해도,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은 스스로 충분히 들었다고 결코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드라시(Midrash), 마하랄(Maharal), 그리고 그라(Gra)는 하나의 원칙으로 그 뜻을 모읍니다. “귀”는 우리 자신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곳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중생된 이스라엘의 태도를 뜻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 올려드리는 간구와 송축의 말이며, 토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내려 주시는 생명이며 빛인 가르침입니다. 평온한 영적 삶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하기도 하지만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거듭된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따라서 우리 또한 그분의 토라를 기꺼이 거둬들여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 요점이 '하아지누' 파라샤 (성경 본문 뒤편)에서 발산해 주시는 가장 깊은 이해력의 하나일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내가 말하겠다"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한 사람의 인격 훈련과 승화를 통한 삶을 세우려면,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귀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은 이 사실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나프쉬이켄 (너희들의 영혼이) 살리라" (사. 55:3).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토라를 듣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욕망을 바로잡으시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 자신과 자율의지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라로 거듭 돌아갈 때—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조차도—“오늘” 반복하는 정독과 나누는 이해력이, 단순히 과거의 시간인 ‘어제’ 배운 것을 똑같이 복습하는 행위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호흡을 부어 주시고, 이 땅에 남게 하신 소중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걸어오시도록 각각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준비하고, 지극히 반갑게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shalom.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אֶרֶץ (이스라엘) 에 응답하리라" -호. 2:21-22

A Daily Bread

ביי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결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행.17:10-11

Shalom.